

제12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글_초등(고)

<나눔이란 꽃>

나눔은 꽃이다.

나의 짧은 팔로는 다 안을 수 없는
부모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사랑도,

어렸을 적 옆자리 친구가
“이거 너만 주는 거야“ 라며
나누어 주던 작은 레몬맛 사탕도,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지폐로
아이스크림 사먹고 남은 400원 고이 모아놔
나눔 저금통에 넣었던 것도,

형태도 크기도 모두 다 다른 것이
아름다운 꽃과 같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끈기 있는 꽃들처럼 나눔도 그러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누어진다.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정원에
나눔이란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고싶다.

<나눔은 모든 것이야>

나눔은 스티커야.
스티커가 물건을 꾸며주는 것처럼
나눔도 세상을 꾸며주잖아.

아니야, 나눔은 에어컨이야.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퍼지게 하는 것처럼
나눔도 마음을 퍼지게 하잖아.

아니야, 나눔은 의/식/주야.
의/식/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아니야, 나눔은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이 색색깔로 변하는 것처럼
나눔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할 수 있잖아.

아니야, 나눔은 모든 것이야.
너희가 말한 것 모두가 나눔이야.

<나눔은>

나눔은 자유야.
우리 모두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

나눔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처럼 원점에서 시작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야.

나눔은 우리야.
서로서로 나눔을 하면
우리가 되기 때문이야.

<나눔으로 물들어진 거리>

길거리와 학교, 집이 검은색으로 물든 거리
빛을 잃어 캄캄해진 나눔을 잃어버린 거리

검은색으로 물든 도시에 작은 나눔의 빛을 비추니
검은색으로 물들어 잘 보이지 않던 색이 보인다.

상자에 작아진 옷을 넣어 아름다운 가게에 보내면
환한 노란 불빛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한 집안에서 흘러나온 작은 빛이 거리를 비추니
그 주변으로 빛이 퍼져 온 세상이 밝아진다.

이제는 검은색이 아닌 아름다운 거리
나눔의 환한 빛으로 물들어진 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

가족은 행복을 나누고
친구들과는 사랑을 나누지

동생과 침묵을 나눌 때도 있고
슬플 땐 인형과도 슬픔을 나누기도 해

나눔은 물건이 아니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인 것 같아

<함께 행복한 나눔,함께 나누는 행복>

"타다닥탁"

"싹뚝싹뚝"

현관에서부터 리듬감 있는 엄마의 칼질 소리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넘쳐 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메뉴를 쉽게 짐작했다.그것은 바로 알록달록 야채가 무지개 처럼 조화를 이루는 김밥이다.오늘도 엄마는 둥글게,둥글게 김밥을 만들고 계신다. 우리 엄마의 김밥은 너무 맛있어서 우리 가족은 손꼽아 기다릴 정도이다.그런데 오늘의 김밥은 더 특별하다.싱싱한 야채와 엄마의 정성이 더 들어갔다.왜냐면 오늘 김밥은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2년전에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아파트에서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이웃들을 보기 힘들었다.그런데 주택으로 이사를 오니 현관문만 열어도 앞집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시는 것도 보고,담도 낮아서 이웃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그리고 우리가 이사 온 집은 원래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다.두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골목에서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 가족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추억을 많이 이야기 해주신다.또 우리 가족이 새 동네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 주신다.그래서 엄마는 종종 감사의 표시로 김밥을 만드셔서 나를 데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 드린다. 나는 그 중에서도 옆집 할아버지와 앞집 할머니 댁에 배달 갈 때가 가장 좋다.왜냐면 앞집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골목골목 깨끗이 쓸고 계신다.내가 인사를 하면 "학교 잘 갔다 와라"하고 응원을 해주신다.나는 깨끗한 골목길을 걸으며 할아버지한테 받은 인사 덕분에 즐겁게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앞집 할머니는 꽃에 물을 주시면서 항상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학교 잘 다녀왔니?"하고 물어보신다.어떤 날은 엄마의 김밥을 가져다 드렸는데 고맙다고 용돈도 주셨다.다시 생각해 보니 그분들은 나에게 매일 응원과 관심을 나눠주셨던 것 같다.

나는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김밥이 정말 좋다.밖에서 김밥을 사 먹을때는 잘 몰랐지만 김밥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이다.더운 여름에는 더더욱 힘들 것 같다.그러나 엄마는 그런 힘든 과정에도 항상 웃으면서 요리를 하신다.처음에는 나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잘 안됐다.그래서 엄마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았다.엄마는 야채 재료가 많이 들어간 김밥을 이웃 어르신들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더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하셨다.또 자주자주 이웃들 얼굴을 보니 정이 더 생겨서 좋다고 하셨다.이제는 나도 김밥을 나눠드릴 때 그런 감정을 느낀다.마치 부메랑 같은 마음이다.내가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드렸을 때 다시 행복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이런 예쁜 감정은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같다.그래서 나는 김밥을 만드시고 이웃들과 나누는 엄마의 모습과 마음이 참 좋다.나눔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거나,비싼 선물이 아니고,우리 가족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우리 엄마처럼 정성이 들어간 김밥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나눔의 모습 같다.

다정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함께 행복한 나눔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손길이 함께 나누는 행복이 된다.
우리 곁에 늘 이런 따뜻하고 고마운 나눔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나눔은 문제 해결사>

내 동생의 취미이자 특기는 '빼앗기'이다. 그것도 내가 아끼는 것만 빼앗는 특징이 있다. 내 동생에게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꼼꼼히 숨겨두지만 동생은 내가 학원에 갔을 때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뒤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훔쳐 간다.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할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필과 지우개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항상 내 필기도구를 가져가는 동생이 원망스러워서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난 나는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 책상 위에 연필통을 몽땅 가져온다. 동생이 내 필기도구를 가져가서 숙제를 못하고 필기도구 찾느라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저번에는 내가 아끼는 샤프가 사라져서 너무 화가 났다. 나는 동생에게 가서 소리를 쳤다. 평소라면 내게 똑같이 소리를 질러야 하는 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동생이 울어버려서 당황했다.

울고 있는 동생을 보니 내가 너무 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샤프를 가져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샤프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놀라게 한 것이다. 내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동생을 슬프게 만들었다. 나한테는 그 샤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말이다. 겨우 샤프 한 자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너무 나쁜 행동이었다. 내가 동생이 갖고 싶어하는 샤프나 연필을 나눠줬으면 동생은 맨날 내 필기도구를 훔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동생과 싸우지 않는 방법은 '나눔'이다. 내가 동생에게 내 연필이나 지우개를 나눠주고, 혹시 내 동생이 말없이 가져가면 빌려주면 된다. 아무리 좋은 연필이라고 해도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눔’은 우리 남매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문제 해결사이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나 싸움이라도 한쪽이 양보하고 나눠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눔’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먼저 나눠주는 마음은 용기가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동생과 한가족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필기도구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용기를 내서 동생에게 ‘나눔’을 하면 우리 가족은 싸움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집에서는 동생에게 나눠주고, 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다.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다.

(끝)

<당근에서 만난 나눔>

우리 아빠는 내게 참 친절하다.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주신다. 아빠는 출장을 다녀오시면 항상 나를 위해 선물을 사오신다. 아빠는 출장을 가시면 일을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도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나눔’이란 힘든 일이다. 우리 아빠가 내게 해주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눔’을 받는 사람만 기쁘고 ‘나눔’을 주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나는 방청소를 했다. 방청소를 하니 내가 산 물건 중에 한번도 쓰지 않은 필기도구가 꽤 많았다. 요즘 유행하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물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 중에는 가격이 없는 ‘나눔’ 물건이 있었다. ‘나눔’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그 물건을 확인해보니, 팔아도 될 만큼 좋은 새상품이었다. 그런데 그 상품을 올린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쓰길 바란다고 써놓았다.

나는 그 글을 보고 ‘나눔’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판매하려던 상품 중에 하나의 상품을 ‘나눔’으로 올렸다. 잠시 뒤에 ‘나눔’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약속을 잡고 만났다. 내 물건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아이였다. 나는 얼른 물건을 전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내게 고맙다며 ‘초콜릿’을 건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나눔’은 나눠주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것이었는데, 아니었다. 나눠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이 다 기쁜 것이었다.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다. 나눠주는 착한 마음이 커지고 나눠 받는 감사한 마음이 커진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나눔’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두 뿌듯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눠주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행복도 나눠주는 착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다. 나눠주는 착한 마음이 커지고 나눠 받는 감사한 마음이 커진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나눔’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두 뿌듯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눠주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행복도 나눠주는 착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에도 ‘나눔’을 할 것이다. 물론 낡은 물건으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을 나눌 것이다. ‘나눔’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좋은 물건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눔’은 당근 마켓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실천할 수 있다. 집에서는 동생에게 양보하며 나눌 수 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혹시 ‘나눔’을 할 때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손해는 금방 채워진다. ‘나눔’을 하자마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나처럼 ‘나눔’의 좋은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끝)

<나눔 바이러스>

나는 나눔이 익숙하지 않다. 외동으로 자란 나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서 쓸 기회가 많지 않았다. 내 옷을 나눠 입을 필요도, 음식을 나눠 먹을 필요도 없다. 늘 혼자서 하는 일이 많다보니 나눠쓰는 일은 내게 조금 귀찮은 일이었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형제가 있다. 어떤 친구는 동생이 둘이나 있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는 이름이 둘 이상 쓰여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형제나 자매끼리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에도 이름이 여럿 붙는 것이다. 내 물건에는 이름표가 딱 하나만 붙어있는데 친구들의 물건에는 글씨체도 다른 이름이 어지럽게 쓰여 있었다.

난 준비물을 잘 챙겨가기로 유명하다. 실수하는 것도 싫어하고,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는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생애 첫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학교 가방에 실수로 필통을 안 넣은 것이다. 그날 아침은 엄마가 잔소리 공격을 하셨다. 나는 괜히 엄마 잔소리에 심통이 나서 가방을 휙 돌려매고 학교로 뛰어갔다. 학교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내가 필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학교에 오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고 오는 내가 필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 내게 큰 충격이었다. 게다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했다. 조레 시간이 끝나갈 때쯤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보던 짝이 내게 말했다.

“필기도구 없으면 내 거 쓸래?”

짝은 내게 자기가 가진 필기도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샤프를 빌려주었다. 나는 친구가 아끼던 필기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물었다.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말고, 낡은 거 빌려줘도 돼.”

“아냐, 넌 원래 좋은 샤프만 쓰잖아. 그냥 이거 써.”

난 친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남에게 물건을 잘 빌려주지 않지만, 혹시 빌려주게 되어도 절대 좋은 것을 빌려주지 않는다. 내게 귀한 것을 남이 쓰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나눔'이란 단순히 내게 있는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친구의 샤프를 빌려 쓰면서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친구가 실천한 것처럼 '나눔'이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쓸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다. 내게 소중한 것을 남이 쓰도록 하면 그 물건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려면 물건보다 더 중요한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내 짝처럼 다른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줘야 할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양보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짝이 내게 베푼 마음은 내 마음에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면 아마 '나눔'이 번지고 퍼져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나눔'은 전파력이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도와주면
나의 뿌리가 자라

내가 우리 가족과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면
나의 줄기가 자라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
나눔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나눔은 우리 몸의 일부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눔을 계속 하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할거야

회복의 나눔

갑작스러운

엄마의 허리부상으로

침대에 누워계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주방 앞에 서서

막막함을 느낄 무렵

부상 소식을 듣고

엄마의 친구들이

반찬을 보내주셨다

냉장고에 반찬이 쌓이는
기적을 경험한 후
나눔이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고 싶어졌다

엄마의 나눔

"엄마 내 옷 어딴어요?"

비록 작아도 소중한 아껴두었던

레이스 달린 나의 옷이 사라졌다

어디갔나 찾을 땐 없더니

사촌동생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나의 옷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엄마의 비밀 나눔에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 속상했지만

옷장 속 꼭꼭 숨겨두고

잊혀지는 것보다

빛나는 옷으로 볼 수 있는

나눔이 더 멋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눔 바보

나눔만 하고 다니는 동네 바보

별명은 나눔 바보

나눔 바보가 지나갈 때마다

나도 “젤리 줘!”

“자, 여기!”

나눔 바보는 고민도 없이 준다.

“애야, 이것 좀 도와라.”

“네, 할머니!”

우렁찬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나눔 바보

나는 아무거나 주는 동네 바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나 나눔을 실천하고

언제나 웃음을 나눠주는

진짜 나눔 천사

무지개

나눔은 무지개다.

알록달록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알록달록 무지개가 뜬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편지를 보내면

무지개의 빨간색이 색칠되고

아픈 친구를 양호실에 데려다주니

무지개의 주황색이 색칠된다.

수업시간에 친구들에게 지우개를 빌려주면

무지개에 노란색이 색칠되고

이웃들에게 먹을걸 나눠주면

무지개에 초록색이 색칠된다.

계속계속 나눔을 실천하면

어느새 내 나옴엔

아주 예쁜 무지개가 뜬다.

빨간 열매 세 알

길을 걷다 발견한

빨간 열매 세알

첫 번째 열매는 사랑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하고

서로 배려하며 여행 다니며

가족을 챙겼더니 열리는

빨간 열매 한 알

두 번째 열매는 나눔

힘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며

왕따 친구를 챙겼더니 열리는

빨간 열매 두 알

세 번째 열매는 행복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마지막

빨간 열매가 달린다.

색연필로 그린 세상

나눔은 색연필

색연필로 그리면 하나의 그림이 되지

빨간색으로는 나눔의 사랑을

주황색으로는 나눔의 기쁨을

노란색으로는 나눔의 행복을

초록색으로는 나눔의 평화를

세상이라는 큰 도화지에 우리 모두 그리자

파란색으로는 나눔의 감사함을

남색으로는 나눔의 희망을

보라색으로는 나눔의 아름다움을 그리면

따뜻한 햇살 같은 세상이 펼쳐질거야

엄마는 나누기 대장

저녁밥 먹는 식탁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 손가락

굴비 한 마리
내 숟가락 위에 한 점
톡 얹어 나눈다

동생 입 안으로 한 점
쓱 넣어 나눈다

아빠와 엄마도
서로 한 점씩
나누어
입안에 쓱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은 용돈을
자선냄비에 넣는 것도
이웃을 위한 나눔이라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데

엄마는 어제
우리 아파트 윗집
꼬마 동생한테도
나눠나 보다

작아진 내 청바지 입고
내 운동화 신고
아줌마 손 꼭 잡고
유치원 차 기다리고 있다

달린 마음을 열어주는 나눔

나는 학교 육상부 단원이다. 육상부는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힘든 훈련을 해야 한다. 어떤 날은 오르막길을 전력질주하는 훈련을 했다. 나를 포함해 단원들은 모두 지치고 힘들어서 길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다. 목이 타는 것처럼 말랐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도 일어나서 물을 가져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육상부의 주장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친 몸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코치님과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함께 나누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단다.”

우리 단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통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로 가서 31개의 물통을 하나하나 단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와 사이가 좋은 후배부터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친구까지 모두 내가 건네는 물통을 받으며 고마워했다.

만약 내가 힘들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육상부 단원 모두는 빨리 회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목마름보다 단원의 목마름을 먼저 걱정하고, 물통을 건네줄 때는 너무 힘들었다. 갈증 때문에 먼저 물을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원들이 먼저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을 건넸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힘든 줄을 몰랐다. 조금만 참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 육상부 단원들은 힘든 훈련을 할 때마다 서로를 챙기게 되었다.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자기가 집은 물통을 마실 때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넨 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신기해했다. 나는 서로에게 건네는 시원한 물의 비밀은 서로 돕고 격려하는 나눔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나눔은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육상부가 개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자의 기량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운동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는 개인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운동을 하며 힘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훈련을 마치고 모두 지쳐있을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의 마음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다.

나와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경쟁자 친구도 내가 건넨 물통 덕분에 더 친근한 사이가 되었고, 주장 자리 때문에 나와 사이가 멀어진 친구도 내가 건넨 물통 덕분에 가까워졌다. 나눔은 내 차례를 남에게 양보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나눔은 내 것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물통을 나눈 덕분에 좋은 '내'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눔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마음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 만드는 좋은 결과물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 나눔은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끝)

나눔이란

나눔이란

해보지 않고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

나눔장터에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눈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지

나에게 나눔이란

모두에게 있는 기회

참여할수록 기쁨이 되지

이 세상 모두가 나눔을 알게되면 좋겠어

나눔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행복도 커져갈거야

나눔의 장터

왁자지껄

사람들이 돈을 내밀며

물건을 산다

땅을 파는 불도저 장난감

싸이렌 장난감

다양한 장난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자신의 사연을 떠올린다

새로운 추억을 쌓으려

나눔장터에 자신의 보물을 내놓았다

나도 보물을 찾으려

나눔장터에 갔다

나눠지는 마음을 주고 받는

나눔장터가 나는 좋다

나눔의 가치

집 안 곳곳

더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숨겨진 물건들을 찾아

큰 마음을 먹고

나눔 장터에 내놓았다

예쁘고 정들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우기며 간직했던 물건이지만

남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와
내 물건을 사가고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눔의 가치가 들어왔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줄 때
진정으로 완성되는 가치를 내 마음 속에 심었다

나눔 장터

학생들이 하나 둘
나눔 장터로 향한다

돗자리를 펴며
물건을 하나 둘 꺼낸다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 줄 선풍기
길고 긴 연필
찐득찐득 말랑말랑 슬라임

물건들이 모두 사연을 품고
새로운 주인이 기다리는
장터에 나왔다

우리는 나눔 장터에서
나눔을 배웠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눴다

<입이 하는 일-1>

아깝다, 내가 아끼는 곰돌이 인형이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무료 나눔되는 모습을 보니

아쉽다, 나는 몇 입도 먹지 못한 떡볶이 나눔장터에 팔려 가는 모습을 보니

아니다, 곰인형을 보고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이, 방긋방긋 웃으며 진공청소기처럼 떡볶이를 흡입하는 중학생 언니를 보니 내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입이 하는 일-2>

하암, 너무 졸리다

아빠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경로당에 가자고 나를 깨운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으악, 너무 귀찮다

귀찮아도 주섬주섬 딸기맛 사탕과 리코더, 동화책을 챙기고
멍한 상태로 아빠 차에 탄다

입 마르시지 않게 딸기맛 사탕도 먹기 좋게 까서 드리고, 동화책도 읽어드린다
어린이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신다
리코더도 연주해 드렸더니 박수를 치며 좋아하신다
오길 잘했다

집에 갈 때도 경로당에 대한 생각을 하다
멍한 상태로 집에 간다

똑똑똑

똑똑똑,

누군가 찾는소리,

알고보니 새로 이사온 앞집이

떡을 들고온 모양이네

똑똑똑,

이번엔 누구지?

알고보니 윗집이 소음 때문에

미안하다며 과일을 들고온 모양이네

똑똑똑,

앞집과 윗집에게 가

사이좋게 지내자며

빵을 건넸어

그 뒤로 엄마는 집에와서 매일 바빠졌어

왜냐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말야

밭작물에서 나오는 인심과 나눔의 소중함

저희 아파트 한 쪽에는 푸릇푸릇하게 어우러진 다양한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텃밭을 작년부터 분양받아서 많은 작물들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하고 오후에는 바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잠깐씩 물을 주는 것 외에는 보통 주말에 텃밭에 자주 가서 밭작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밭인 줄 알 정도로 모래가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땅을 살려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천연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우선 커피숍에서 커피가루를 얻었습니다.

약 10일 이상을 삭혀주면 좋은 영양제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께서 밥을 하실 때 씻고 남은 쌀뜨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첫 번째 물에서는 농약이 흘러나올 수도 있으니 두 세 번 째 물을 받아서 설탕한 스푼을 넣어서 2주 이상 삭혀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천연영양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수 만든 천연 영양제를 많이 주어도 원래 밭의 용도가 아니어서 그런지 작물들이 잘 자라지는 않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먹게 되는 과일들이 많아지니 저는 이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밭에 가서 심는 곤했습니다. 그 결과로 8개중 단 한 개만 자라게 된 망고도 쑥쑥 잘 자라나고 있고 파프리카도 싹을 잘 틔워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먹고 난 수박과 메론 그리고 참외까지 장난삼아 심었습니다. 먹을 정도의 날씨면 이제 키우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인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해서 심어봤습니다.

작물들이 여름날 뜨거운 햇빛과 비를 잘 맞고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생각보다 잎이 너무 무성해져서 옆의 밭까지 늘어지기 시작해서 저는 밭작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밭작물을 버리려고 챙기던 중에 저는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수박이 달려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저는 속도 궁금했습니다. 작아도 빨갭게 물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조심히 잘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너무 작아서였는지 수박 안쪽은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른 수박들도 열매를 맺으며 잘 커나가기 시작했는데 탁구공보다 훨씬 커지자 드디어 속이 빨갱게 잘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는 시기가 시작되었고 물을 너무 많이 머금었는지 수박들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부들의 상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꽃과 나비들의 중요성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작물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워낸 작물들을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시면서 서로 재미있어 하시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들께서 건네시는 인사나 말씀들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희 밭에서 잘 자라난 상추와 쑥갓 등을 조금씩 나누워 드리기 시작했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면서 마주하던 얼굴이지만 낯설고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했던 삭막한 아파트 생활이었는데 어느새 “오늘도 잘 자라고 있구나! 물도 열심히 주니 더 잘 자라는 것 같네!” 라고 지나가시던 어르신들도 칭찬을 해 주시고, “언니 나 이거 하나만 주세요!”하면서 유치원에서 하원 하는 귀여운 꼬마 숙녀도 내 토마토를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 둘 씩 작물을 나눠 먹으면서 시작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제 1년을 지내보니 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처럼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며 반가운 인사를 만날 때마다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밭작물을 기르다보니 다양한 재미와 상식을 알게 되니 재미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과도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된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더운 날씨에 물을 주고 밭작물들을 살피는 일은 항상 힘들고 모기도 많이 물려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에 밭작물을 잘 돌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싱싱한 밭작물들처럼 모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어른들께 넉살 좋게 인사를 하며 저는 또 물을 주러 갔습니다. 저는 행복한 이웃 사이로 만들어 준 밭농사 활동이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나눔의 비밀

나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이
남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을 때
고맙다며 잘 쓰겠다며 인사했을 때
마음 한 쪽에서 느껴지는 건 '뿌듯함'

친구들이 내놓은 물건에서
동생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았을 때
갖고 싶었던 필통을 발견했을 때
마음 한 쪽에서 느껴지는 건 '행복함'

뿌듯함과 행복함이 어우러진
나눔 장터에서
나는 나눔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나눔의 씨앗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다른 사람의

희망이자 빛

내가 한 작은 나눔은

다른 사람의 삶의 지지대

혹시 그거 아니?

나눔은 씨를 뿌려

작은 씨앗에

한 명이 물을 주면

열 개의 싹이

쑥쑥 자라나

큰 나무가 되지

그 큰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다
그 열매는 자라나 도움의 손길이 되어
다시 작은 씨앗들에게
물을 주지

나눔이 반복되어
나누는 사람이 모이면
나무처럼 큰 단체가 돼
그 단체가
사람들에게 또 나누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돼

그럼 언젠가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

나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나눔

위로나 희망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나눔

나눈다는 건

보람차고 뿌듯한 일

마음 한쪽이 따듯해지고

나 자신이 기특한 일

돕는다는 건

어렵지만 쉬운 행동

꼭 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작은 것도 나눔이란 걸 알면 쉬운 일

기부한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으면 되고

멀리 있다면 내가 다가가면 되고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또 한번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게 나눔

은혜 깊은 까치 이야기

나눔이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다른 사람도 기쁘지만 나도 기뻐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무언가를 나누면
좋은 일도 생기지

들어본 적 있니?
은혜 깊은 까치 이야기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야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 먹힐 위기에 처한
까치를 구해줬어.

그날 밤, 여자로 둔갑한 구렁이가
선비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엔 까치가 구해줬지

도움을 줬더니
은혜로 돌아온 이야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어.

나눌 수 있는 건, 나눠보는 거야
은혜 값은 까치처럼!

마음나무

[책]

책은 두께가 더 나갈수록 무겁다

후회도 자신이 한 일이 못마땅할수록 더 무겁다

나눔도 후회가 온다

하지만

기쁨도 책만큼 온다

[나무와 흙]

나무는 계절이 바뀔수록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입으며 따뜻하다

반면에 흙은 늘 똑같은 옷만 입는다

겨울에 나무는 흙에게 옷을 준다

겨울에는 흙도 추우니까

[소리]

발소리는 또각또각 쿵쿵

물건은 부스럭 부스럭

아이들은 우와

나눔은 와, 하하하

[손잡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잡이가 있다
계단에도 안전하기 위해 손잡이가 있다
사람도 얼마든지 누군가의 손잡이가 될 수 있다

[물]

물은 끓이면 뜨겁고
얼리면 차갑다
나눔도 물처럼 온도가 제각각이다

[문 넘어]

따뜻한 사람도 문 뒤에서는 누구보다 차가울 수 있다
차가운 사람도 문 뒤에서는 따뜻할 수 있다
하지만 문 없이 따뜻한 햇살만 가득한 사람도 있다

[바늘과 실]

바늘과 실 중에 한 개 밖에 없으면 할 수 없다

두 개가 있어야 서로를 도우며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개미]

개미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각자 역할을 맡아 그 역할에서

다른 개미와 함께 열심히 일한다

아무리 식량이 없어도 최대한

서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개미가 아직도 많이 살아남은 이유는 나눔을 해서이다

나눔은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다

“넌 왜 이렇게 낮을 가리니? 처음 본 애 하고도 친하게 좀 지내~!”

엄마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나는 항상 낮을 가렸다. 그것도 심하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낮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 우정이라는 퍼즐을 만들어준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6살 때까지 서울에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춘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와 나, 동생은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남매에게 앞으로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봐 주실 거라고 하셨다. 그 집에는 나와 동갑인 친구(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가 있다고 하셨다. 나는 동갑내기 손주라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큰 걱정이었다.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난 첫 날 가지 않겠다며 떼를 썼다. 누가 절벽에서 밀기라도 하듯 나는 땅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결국 끌려가게 되었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땐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며 갑자기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잡생각까지 들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아, 문이 열리고 말았다....!’ 다행히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셨다. 두 분께 물어보니 그 친구는 곧 올 것이라고 하셨다.

“빹빹빹!! 띠리리~!” 그리고 약 한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며 그 친구가 들어오고야 말았다. 평소의 나 같으면 방으로 숨었겠지만 그때 나는 갑자기 용기가 조금 났다. 나를 보자마자 그 친구가 멋진 미소를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내게 이렇게 빨리 웃어준 아이는 그 아이가 처음이었다. “아...안녕? 이름이 뭐야.....?” 나도 모르게 얼어붙었던 입이 열렸다. “나? 이창민! 넌?” 창민이는 밝고 정이 많은 아이였다. 그 햇살같은 정을 나누어 받는 나는 왠지 모르게 고마우면서도 행복했다. 나와 정반대인 창민이가 부러우면서도 멋졌다. 창민이를 만난 일. 이 일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친구 사귀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단 1초 만에 친해진 친구는 아직까지 창민이가 유일하다.

나는 창민이와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나누며 지냈고, 나의 친구 만들기 능력은 점점 좋아졌다. 어른들은 창민이와 내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낸다고 표현하시기까지 했다.

작년 우리 집이 다시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전학을 왔지만, 나는 반 아이들을 쉽게 잘 사귀었고 요즘은 친해지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 때 경험한 창민이의 미소, 그리고 우리의 감정 나눔이 내 인생에 부족했던 우정이라는 퍼즐 한 조각이 되어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퍼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받은 이러한 소중한 감정을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퍼즐 한 조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건네는 친절할 말, 미소, 간단한 도움, 응원과 지지.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나눔들로 인해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 나눔이란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한 뼘 더 성장하는 마법의 열쇠 같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결핍이 있다. 텅 빈 한 조각.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 나눔 특별시!

“엄마, 나도 후원하고 싶어!”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누드 아킬라와 인연이 된 시작이다.

나는 2학년 때 학교에서 ‘기부’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다. 그와 동시에 ‘나눔’이라는 단어의 뜻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진행한 편지쓰기 대회에서 어느 가난한 아이의 동영상을 보았고 그때 선생님께서 기부와 나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그 편지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나서부터 그 공모전을 주최한 회사가 기부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엄마도 그때 엄청 기뻐하시고 내 뜻을 환영해주셨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보다 두 살 어린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매달 3만원을 기부한다. 내가 후원해주는 친구, 누드 아킬라에게서 온 편지는 내게 행복을 나눠준다. 그 편지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20번 정도 적혀있고, 같이 오는 사진도 계속 바뀌며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코로나 때였는데 그 아이는 마스크도 못쓰고 지내는 상태였나 보다. 입고 있는 옷도 헐었고, 아주 오래된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 1년, 1년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달라졌다. 깨끗한 마스크도 쓰고, 새 옷을 입고, 양말에 운동화까지 신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는 데도 누드 아킬라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전해졌다. 사진 속에 그 아이가 웃으니까 내 마음도 편안했다. 학교도 가게 되었다. 누드 아킬라에게 기부를 하며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도 들었다. 맑은 마음은 가볍고도 행복했다.

나는 2학년 때 ‘기부’와 동시에 제대로 뜻을 알게 된 ‘나눔’을 꽤 많이 실천해보았다. 지금은 이사를 와서 이용이 줄어들었지만, 약 3년 동안 매일 버스를 타고 다녔다. 학원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 안이 집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보통 사람들은 버스를 많이 타면 자리에 많이 앉아봤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던 동안 앉은 적이 10번도 되지 않는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엔 앉았어도 곧 일어나게 되기 일쑤였다.

내가 타던 버스 노선이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 터라 나는 매번 자리를 양보해드렸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 수업까지 듣고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이 탈 때면 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도 뿌듯해졌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들 한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나눔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꽤 꿈이 크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어서 멋진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기부를 하고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사는 미래는 대한민국 곳곳이 모두 나눔 특별시이기를!

"나눔의 마법 주문"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안경을 쓰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 주변에 반짝이는 구슬들이 보였다. 빨강, 파랑, 노랑... 모든 색깔의 구슬들이 사람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주변엔 초록 구슬이 가득했다. 할머니 집을 들어드리자, 놀랍게도 그 구슬 하나가 날아왔다.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 민수가 울고 있었다. 주변엔 회색 구슬뿐이었다. 민수를 위로하자 회색 구슬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날아왔다.

점심시간, 급식을 남긴 친구에게 사과를 나눠줬더니 빨간 구슬을 얻었다.

집에 오는 길, 길고양이에게 과자를 나눠줬더니 주황 구슬이 생겼다.

하루가 끝날 무렵, 주변엔 수많은 색깔 구슬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구슬들은 바로 '행복'이었던 것이다.

잠들기 전, 안경을 벗으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안경이 녹아 눈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들렸다.

"이제 너는 나눔의 마법사다. 네 행동으로 세상에 행복을 퍼뜨릴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안경 없이도 여전히 구슬들이 보였다. 매일매일 더 많은 행복 구슬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나눔의 마법 주문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기에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 나
앞에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있다
나도 다리가 아프지만
나는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

이제는 커서 필요 없는 인형
난 여전히 그 인형이 좋지만
인형을 좋아하고 살 수 없는 아이들도 있기에
나는 그 인형을 보육원에 기부했다.

어느 날, 나무를 심는 단체를 보았다.
난 굳이 기부를 안 해도
지금 잘살고 있지만
나무가 없어 고통받는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에
나는 기꺼이 기부했다.

재작년 봄

강원도에서 큰불이 났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지만

집이 타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이 있기에

나는 기꺼이 기부했다.

03.2.18

내가 태어나기 전

대구에서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지만

슬퍼하는 유족들이 있기에

나는 기꺼이 기부했다.

학교 미술 시간

수채화 시간이었다.

그런데 붓을 안 가져온 친구가 있었다.

나는 색이 섞이는 게 싫어 붓을 많이 가져왔지만

그 친구는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기에

나는 붓을 기꺼이 양보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기에

나눔은

내가 아끼는 것을 기꺼이 꺼내놓는

성숙한 마음

“회장님, 이거 2 반에 좀 가져다 줘요.” “야, 회장. 이거 빨리 모아줘!”

하... 학교에 가자마자 ‘나의 시간’은 사라졌다. 나는 원래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이유는 내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두산 베어스 광 팬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야구를 해야 한다. 내 미래 희망이 야구 선수이기도 하고 말이다. 또 책 읽기도 꽤 좋아하고 학원 숙제도 해야한다. 하지만 5학년이 된 지금, 내시간이 없다. 나는 이래서 회장이 되기 좀 싫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회장, 부회장을 피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반에 친한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렸고 모두 나를 지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회장이 되었다.

회장이 된 후, 나는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나눔’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공약이었던 ‘학급 필통’이다. 학급 필통은 필기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필통이다. 나는 평소 남이 나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타입이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학급 필통에서 아이들이 필기구를 꺼내 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했다.

색연필과 연필 등을 유용하게 쓰는 현재. 가위와 풀을 꺼내 쓰는 여자 아이들. 지우개도 자주 사라지지만 잘 채워 둔다. 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철이 조금 들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회장이기에 선생님의 심부름도 많이 해야 했다. 하필이면 우리반이 부장반이라서 심부름이 많았다. 역시 처음에는 조금 싫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불평도 들어야 했다. “회장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뒤틀렸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반을 위해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 참고 계속 배려하였다. 솔직히 나는 ‘잘못 뽑은 반장’이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했다. 오기도 생겼고 말이다. 하지만 배려와 인내는 점차 습관이 되고 이제는 2학기를 앞두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진짜인 것 같다.

또 어느 날, 친구들과 용왕산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상엽이가 올라오자마자 울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소외 당해서 슬프다는 거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엽이가 어떤 친구와 싸워서, 그 친구가 오늘 하루 야구에 안 꺼준 것이다. 나는 평소 밝던 상엽이가 울길래 정말 놀랐다. 나는 바로 상엽이를 위로해 주었다. 회장으로서 쌓아온 배려심이 바로 발휘되었다. 나의 노력에 상엽이가 마음을 열었고, 속상했던 마음들을 털어냈다. 나는 상엽이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며 공감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친구의 속마음을 들으니 우정을 더 크게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나는 또 한번 나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내 능력과 지식도 나눠 준다. 그러니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든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참 많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고 소방관은 자신의 시간을 나눠 이웃들을 위해 불을 끄고 생명을 구한다.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를 가르칠 때 행복하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때 행복하다. 모두 나눔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눔이 내가 아끼는 것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성숙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기꺼이 말이다.

나눔은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요즘은 왜 어려운 길을 가려 하느냐며 말하는 눈치다. 예전보다 선생님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이 되려는 이유는 배움을 나누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친구들이 무언가를 어려워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친구들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늘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회장 후보 공약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늘 행복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반을 만들겠다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공약은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하라고만 하는 회장보다는 나눔을 실천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회장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내가 쓸 공약이다. 실제로 나는 5학년 2학기에는 회장 선거에 나가 우리 반을 위해 나의 재능을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프리카에 봉사를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두 일일이 신경 쓰고 보살펴준 이태석 신부님이 병으로 생을 마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를 그리워했다. 나는 이 분을 현대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 책과 TV에서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셔서 온갖 병에 걸리고 또 식량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아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다. 우리 엄마도 유니세프에 기부중이다. 우리 가족도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내 생각에 나눔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의 나무를 주는 것'이다. 나눔은 뿌리를 내려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나눔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의 열매를 열리게 한다. 나눔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기도 한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진정한 위인과 지도자는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아는 위인들 중에 나눔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훌륭한 지도자는 평소에 나눔을 많이 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 알았지만 반드시 실천까지 할 것이다.

“채린아, 이거 좀 도와줄래?” “물론이지!” 오늘도 이렇게 흔쾌히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구나,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한테 부탁하니 감격스럽다, 이 일 재미있겠다 등의 감정을 나는 느낀다. 그래서 나는 잘 성장하여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나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말이다. 나눔은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는 그 멋지고 훌륭한 미래로 성큼 걸어갈 것이다!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나눔’이 있다

나눔이란 나의 일부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실제로 쓰레기를 줍곤 했다.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앞 문구점 옆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들을 주워 왔다. 그때는 포켓몬 카드가 한창 유행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희귀한 카드만 쏙 빼서 가지고 비닐 껍질이나 좋지 않은 카드를 문구점 앞에 버렸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지구를 위해서 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이 보기 불편해서 주워서 버렸다.

그 후로 친구들과 모여서 ‘줍깅’을 실천했다. 어느새 우리의 등굣길, 하굣길은 지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배우면서 내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줍깅’이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했기에 그렇다. 지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땀을 나눈 이 시간들이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3학년 때 학교에서 파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가져갔던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리고 자판기 앞으로 가서 마구 버려져 있던 음료수 캔이나 담배꽂초 등을 주웠던 일이 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비닐 봉지는 금세 가득 채워졌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고, 누가 봐주지 않았어도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던 일이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했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내가 티끌만큼이나마 지구를 정화한 것 같아 보람되고 뿌듯하였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덜 발전한 사람들 이라고 믿기 일쑤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 아빠는 매달 2만원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오래된 기부다. 나도 학교에서 편지쓰기 활동에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본 적이 있다. 어려운 친구의 힘든 삶을 보고 나의 진심을 담아 편지 도 썼었다. 용돈으로 받는 돈을 모아 기부하였다. 나의 작은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최근 학교에서 푸드뱅크 기부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푸드뱅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 집에서 푸드뱅크가 하는 일을 찾아보고 기부에 참여하기 위해 쌀을 가져갔었다. 친구들과 함께 기부한 쌀이 다른 이들에게 든든한 한끼 식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로웠다. 그들에게 희망의 세계를 내어줄 작은 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마음도 든든했다.

어릴 때는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했다. 이제 그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분명히 알고 반성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비와 꽃이 연결된 것처럼, 말미잘과 흰동가리가 공생하는 것처럼, 북극곰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지구 반대편의 또는 내 주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작더라도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 나눔 가족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배꼽 고개를 내밀고 인사하고 있는 우편물이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편지지를 꺼내보니 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다. 평소에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적이 없었는데, 누가 보낸걸까? 궁금증이 생겼다. 나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열어 봐도 돼?” 하고 여쭙어 보고 허락을 받아 편지를 뜯어 봤다. 거기에는 ‘김서정 후원자님, 지난 5년간 저희 재단에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편지글이 적혀 있었다. ‘어? 내가 후원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후원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의 방 한 칸에 조용히 넣어두고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숙제를 했다.

드디어 엄마가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오셨다. 우리 엄마는 특수학교의 교사이다. 나는 우리 엄마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여쭙 보았다. ‘엄마! 나는 후원한 적이 없는데..잘못 온거 아니야?’라고 여쭙어 보니 ‘엄마가 대신 우리 서정이 이름으로 몇 년 전 부터 꾸준히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적이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꼈졌다. 마음 속으로 너무 행복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다시 한번 엄마에게 여쭙봤다.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하는거야?’라고 했더니 ‘앞으로 서정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엄마의 작은 바람이 있었거든. 그리고 엄마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서정이라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것 같았어.’엄마의 대답은 더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주었다.

“아~그렇구나..내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도 오고 엄마!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 서정이 벌써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알아 버렸네, 서정이가 기분이 좋다니 엄마도 기쁘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 엄마에게 이거 말고도 더 있냐고 여쭙어 보니 엄마가 하고 계신 나눔이 5개 이상은 되었다. ‘우와.....’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특수학교에 출근을 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데, 기부와 후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엄마가 마더 테레사처럼 대단해 보였다. 게다가 엄마가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생각에 더 감동을 받았다. 엄마는 여러 곳에 후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

난민들에게 하는 기부,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부,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언니들을 위한 기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부, 엄마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헌혈을 못하시지만 적십자에도 기부를 하고 계셨다. ‘엄마!!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여쭙어 보니 ‘가진게 많아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콩알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나눔이란다.’라고 말씀하셨다. 난 아직 어려서 엄마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눔이 기분이 좋은 일이라는 걸 조금 이나마 알 수 있었다.

엄마랑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 병원 같은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빠가 간호사 선생님 같은 분과 이야기를 하고 곧장 침대에 누워서 아빠의 팔에 주사바늘을 찌르면 빨간 피가 호스를 통해 나오는 걸 본 기억이 난다. 기다림이 많이 지루했지만 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과자를 항상 주셨기 때문에 과자를 먹을 기대에 가득차 아빠를 종종 따라다녀곤 했다. 지금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 아빠는 그때 헌혈을 한 것이었다.

아빠는 꼭 한달에 한번씩 헌혈을 하러 다니셨는데 처음에는 ‘주사바늘을 찌르면 아프고 몸에서 피가 빠져 나가면 죽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사람의 피는 어차피 매일 일정 양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거라서 헌혈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꾸준히 헌혈을 하기란 어려울 텐데 늘 꾸준히 헌혈을 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겼고 나도 건강하게 커서 아빠처럼 헌혈을 꼭 해봐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지금은 아빠가 건강이 좋지 않아 헌혈을 못하고 계시지만 얼른 건강해 지셔서 아빠와 함께 손잡고 헌혈을 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니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 엄마에게 또 물어봤다.

“엄마! 혹시 언니는 나눔을 실천 하는게 있을까?”

“그럼!! 언니는 재능을 나눔하고 있지..”

“재능?” “언니는 피아노를 잘 치잖아.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시간에 반주를 하고 있잖아.” “아~그런것도 나눔이구나...” “그럼~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남을 기쁘게 해 주는 것도 나눔을 실천하는 거란다.”

나는 엄마처럼 돈이나 아빠처럼 헌혈을 하는 것만 나눔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어린 우리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는 걸 엄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엄마! 그럼 나는 무슨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서정이라도 이미 실천하고 있잖아.”

“어? 나는 엄마처럼 돈을 기부한 적도 없고 아빠처럼 헌혈을 한 적도 없고 언니처럼 피아노를 잘 치지도 못하는데? 무슨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서정이는 학교에서 부반장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위해서 심부름도 하면서 학급을 이끄는 사람이잖아. 봉사 활동도 하나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

“우와~ 정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해주니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나눔이 있고 나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나눔도 있으며 나도 모르게 나눔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눔이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어린이도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또 작은 소망이 생겼다. 2학기에는 반장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5학년 때는 학교 부회장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6학년 때는 학교 회장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 아니!! 부회장, 회장이 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해서 누군가가 나의 나눔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눔을 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하고 따뜻해 질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나눔도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 : 나눔

“으악! 드러워! 이거 빨리 치워봐!”

우당당탕.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난 친구들과 할 리갈리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내가 종을 치려고 한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우성인 그쪽으로 돌아봤더니 교실 바닥에 토사물이 가득했다. 한 친구가 체해서 토를 한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빨리 치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와중에 난 용기를 내어 휴지를 한 장 뽑아들고 토를 쓸어 담았다. 휴지가 너무 얇아 토가 손에 다 묻기도 했는데 갑자기 비닐도 없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닦았다.

‘난 할머니 집에서 개똥도 만지는데 맨손으로... 머 어때?’ 라는 생각으로 얼른 치웠다. 그리고 친구가 화장실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에서 또 토를 하였다. 난 겁싸게 달려서 또 닦았다. 너무 바빴다. 갑자기 전쟁이 터져 우리 팀이 나를 무전기로 여기 저기로 와 달라고 호출을 하는 것 마냥 아이들은 나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채아야, 여기 여기!” “채아야,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왔다갔다 하며 아이들을 도왔고 토를 한 그 친구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금세 내 몸이 뜨거워졌고 땀별에서 체육을 한 것 같이 땀이 났다. 다른 반 아이들은 치워 주지도 않을 거면서 친구에게 상처만 줬다.

또 빨리 치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해 괄씸하기도 했다. 평소 나라면 맞서 따졌겠지만 나는 꼭 참고 열심히 치웠다. 그 일은 두고두고 뿌듯하다. 난 사실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먼저 나서서 치웠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친구와 생각보다 많이 친해졌다.

그리고 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길을 거의 다 안다. 나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친구의 지도가 가끔 되기도 한다. 그 날은 내가 15분 정도 남기고 학원으로 가는 길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한 외국인이 나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였다. 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실을 좀 버벅거렸다.

학원이 7분쯤 남았는데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데려다 주고 학원으로 뛰어갔다. 비록 10분이나 늦어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지만 그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인이 친절하다는 것을 몸소 알려준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 좋은 꿈을 꾸었다.

이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나눔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더 쉬운 길이 있더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겠단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먼저 실천할 수 있다. 아주 쉬운 일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것은 마치 어미가 자기 새끼한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도 마음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눔은 작더라고 다듬고 다듬어 보석이 되는 것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 썰은 앤서니 브라운이네!”

작년 겨울, 엄마는 또 크리스마스 썰을 사오셨다. 크리스마스 썰은 예쁘기도 하지
만

사는 것 자체가 기부가 되어서 일석이조다.

그것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 썰 그림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고 선물은 받는 것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한다. 하지만 작년 크리스마스는 더욱 더 특별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앤서니 브라운 스티커를, 엄마는 키링을 사오셨기 때문이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편지를 쓰지 않으니 다양한 형태의 썰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내게는 앤서니 브라운 크리스마스 썰이 두 세트나 생기게 된 것이다.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기부하기’인 것 같다.

하지만 며칠 전 씁쓸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아프고 가난한 아이들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비꼬듯 따라하면서 웃었다. 장난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런 행동을 하다니, 화가 났고 그 아이들은 '기부'도 하지 않을 게 짐작됐다.
나는 엄마가 매년 사주시는 크리스마스 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다.
그런 작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동안 모은 크리스마스 씬을 볼 때마다 내년에도 꼭 사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크리스마스 씬을 사면 결핵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또 내가 실천했던 작은 나눔은 학교와 학원에서도 이어졌다.
바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엽서를 그리는 것이다.
나는 이 엽서 그리는 활동을 할 때 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이가 나였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심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는 한다.
또 이 엽서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썼으니까 이것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내 이런 마음이 세상 곳곳으로 나뉘지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활동을 하면서 그때 그 힘든 장소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단어가 더 뜻 깊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나눔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썸을 사지도 않고
심지어는 썸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매년 하는 기부 활동이 더욱 더 뜻 깊고 특별하게 느껴
진다.
우리 가족 덕분에 많은 사람들 즉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나눔이라는 것은 관심과 진심으로 얻어낸 값진 것이다.
큰 것이 아니라도 작고 빛나는 것. 꾸준히 해서 보석이 되는 것.
그런 게 진짜 아름다운 나눔 같다.

나눔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

우리 학교 4학년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다. 3월 4일, 개학식 날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친구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그 친구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옆에는 항상 보조 선생님이 계셨다. 4월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행운이 찾아왔다. 그 행운은 장애를 가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 나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자폐'를 가진 친구는 장애가 있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첼로 연주를 잘했다. 그 재능을 알아본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우리 반 친구에게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 곁을 떠나 레인보우 예술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그 친구를 축하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 친구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 1000마리를 접기 시작했다. 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은 일본의 '센즈바루(천우학)'에서 온 것이다. 일본에서 1000마리 종이학은 무병장수와 병의 쾌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병문안을 갈 때 종이학 1000마리를 실에 꿰 '센즈바루'를 만들어 선물로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 천우학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학 1000마리 접기는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손재주가 좋지 않아 더 힘들었다. 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쓴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을 접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든 학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학이 쌓이기 시작하니 학이 몇 마리인지 세는 친구가 필요했다. 작년에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한 반이었던 '재희'라는 친구가 지원했고, 재희는 친구들이 몇 마리의 학을 만들었는지 기록하기 시작했다. 학 1000마리가 완성되었을 때 '현욱'이라는 친구가 학을 100마리 넘게 접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에서 학을 가장 많이 접은 친구였다. 현욱이는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했던 그 친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학을 접었다고 했다. 현욱이 외에도 우리 반 친구들은 열심히 학을 접어 학 1000마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1년 전, 나는 물질적 나눔을 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언니에게 후원을 했었다. 나눔을 실천하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물질적 나눔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나눔은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하기에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후원을 할 수 있었다. '나눔'이라고 하면 물질적 나눔이 먼저 생각났던 이유는 후원을 해봤던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접기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학을 접어 보니, 그것 역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나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질적 나눔은 받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무엇을 나누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나눔만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물질적 나눔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물질적 나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읽은 ‘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덮인 날’이라는 책에서도 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2007년 태안군 기름 유출 사고에 관한 책이다. 전문가들은 태안이 옛날 모습을 되찾기까지 적어도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바다를 뒤덮은 기름을 닦아냈고, 7년 만에 태안은 사고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나눔이란, 물질적 나눔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따뜻한 마음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작은 마음이 가치 없다고 지나치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나눔을 실천해 보자.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을. 작지만 많이 모였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마음을.

흑역사를 나누고 새역사를 쓰는 나

5학년 1학기 중반부터 내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친한 친구 2명이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재는 왜 저렇게 행동해?” “똥 왜 저런 애랑 놀아?”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어.” 그런 가시 같은 말들이 내 마음속에 콕콕 박혔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다. 우리는 얼마전까지 분명 우정을 나눴었는데 지금은 증오를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그럴 때 먹구름 속 한줄기 빛처럼 내게 희망을 나누어 주신 분이 있다. 바로 담임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그토록 깊던 절망의 늪에서 날 끌어당겨 주셨다. 그때 난 혼자였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말 걸기도 언짢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날 도와주신 건 다름아닌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온갖 신경을 써 주셨다.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다. 계속 신경 써 주시니 죄송해서. 선생님은 매일같이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고 때로는 우리 셋을 불러 화해시키려 하시기도 하셨다. 나는 그토록 날 잘 챙겨 주시는 선생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 그러나 이런 선생님의 노력과 다르게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갈라졌다.

이젠 아예 내놓고 날 무시했다. 선생님이 서로 인사라도 하라고 그러셨지만, 소용 없었다. 나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예전처럼 도서관을 같이 가자고 했었다. 울면서. 그래서 같이 가기로는 했는데... 지켜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나도 다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3명이 친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난 5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더 친구들에게 신경 좀 더 썼더라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다. 유은이가 아침에 도서관 같이 가자고 했었다. 내가 주아랑만 가니까. 유은이가 등교를 나랑 주아보다 늦게 하다 보니 나랑 주아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많았다. 유은이가 기다려 달라 했었는데. 그러면 도서관을 허겁지겁 가야 되다 보니까 우정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친구들만 야속하고 미워했었는데. 아니다, 나도 잘못된 거였다. 내가 잘못된 거였다.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친구들도 나와 멀어진 거였다. 그 친구들과는 다시 친해질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이미 틀어진 사이는 다시 돌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것을 배웠다. 하지만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최대한. 날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덕분에 친구에게 대하는 방법, 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눔 받은 것 같다. 희망까지도. 선생님께 한 마디 해드리고 싶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픔을 딛고 내가 성장한 것 같다. 이제 친구에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알게 됐다. 또 친구를 보는 안목도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나의 새역사가 한 줄 한 줄 다시 쓰여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선생님처럼 마음 아픈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다.

<나눔은 부드러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오늘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보상해 줘야지!”

나는 학원에서 나오며 나를 다독였다. 내 주머니엔 4,000원이 있으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잔뜩 했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로 걷던 중, 행복한 백화점 앞에 있는 자선냄비를 보게 되었다. 잠시 망설여 졌다. 그 순간, 엄마의 말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눔은 중요해. 엄마는 나눔에서 많은 걸 배웠어. 우리 수민이도 나눔이 소중한지 알았으면 해.” 나는 생각했다. 아이스크림은 나에게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아이스크림을 살 이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더 큰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자선냄비에 넣기로 결심했다. 이 돈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다. 돈을 넣고 다니 마음이 달콤함으로 가득 차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말을 되새겨 보니 이 일도 떠올랐다. 나와 쌍둥이 언니인 이수현이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부근 공사장 앞쪽에 40대 노숙자 분이 앉아 계셨다. 나는 노숙자를 처음 본 터라 조금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혹시나 싶어 다시 뛰어가 봤는데 아저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노숙자였다면 어땠을까 보고도 지나친 사람들이 무심하게 보이지는 않았을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눔의 순간을 지나치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왠지 죄책감이 들고 그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 40대 노숙자 아저씨에게 조금이라도 기부했다면 그 아저씨의 하루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아마 그 아저씨가 내가 다시 돌아오기도 전에 떠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은 ‘나눔’. 나에게 나눔이란 무엇이었을까? 단지 나눔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나누어 주는 행위일까? 나에게는 나눔이 관심이 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 인생 첫 나눔을 시작으로 나의 나누는 마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람들은 나눔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눔은 하기 힘들다. 자신의 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나눔을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나도 나눔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눠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눔의 손길은 마음의 따뜻함을 전달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나눔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관심 있게 바라보면,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을 테니 오늘도 나는 나눔의 레이더를 켜고 나의 길을 간다.

나눔,

모든 이들의 해피엔딩을 위해!

“자, 우리는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고모가 말했다.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다. 고모는 큰맘 먹고 나와 동생을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말레이시아로 데려갔다. 2달 동안 어학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고모는 엄마가 없던 우리 남매에게 특별히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나는 그곳에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게 있으면 했다. 말레이시아는 화폐의 단위가 ‘링깃’이다. 우리나라 돈에 비해 환율이 매우 낮다. 무려 1링깃이 300원인 것이다. 그랬기에 나는 돈을 마음껏 썼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을 안고 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 풍경을 본 순간,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왔다. 아들 둘은 나보다 어려 보였다. 어쩌면 내 동생보다도 어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 앉아서 있다니... 게다가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대로 돈을 펄펄 썼으며 나 자신이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마주쳐버린 이 아이들은 어떤가? 길거리에 앉아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꼴이라니... 나는 바로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에서 10링깃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있는 돈통에 넣어 주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잠시 안도하는 느낌과 따뜻한 느낌이 섞여 있는 듯 한 그런 눈빛이 나는 참 슬프게 느껴졌다.

아빠와 이혼한 우리 엄마도 잠시 생각났다. 그럼에도 내 최종 감정은 역시 ‘기쁘다’였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내가 뭐라도 된 느낌이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어떤 여자아이가 돈통을 들고 있었다. 그것도 맨발로 말이다. 나는 5링깃을 꼭 쥐며 생각했다. ‘과연 내가 저번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는 나랑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말을 걸면 어찌지?’ 이런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지나갔다. 그러다가 나는 그대로 여자아이를 지나쳐 버렸다. 나는 이때를 두고두고 후회한다. ‘아... 어차피 안 쓸 돈이었구나... 그 아이에게 줬더라면 아주 귀하게 쓰였을 돈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했다. 나는 이때부터 ‘나눔’을 중요시 생각한다. 나눔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교실에서 다툼이 생기면 나는 싸움을 중재하고 ‘나눔’을 실천한다. 친구들에게 싸울 때 끼어 들어서 나는 싸움을 말리는데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나눔하는 느낌이 나는 든다. 이런 것이다. 내가 아이들의 싸움을 말림으로써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끼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 것이다. 어쩌면 새드 엔딩으로 끝날 이야기를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끝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 이야기는 아름답게 흐를 수 있게 돕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친구들에게 새로운 ‘해피엔딩 이야기’를 나눔 해주고 있다. 5링깃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이다.

나눔의 온도

작년 겨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청 앞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계라는 것을 보았다. 기부를 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기부 정도를 온도로 나타내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현실로 와 닿기도 하고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 온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눔이란 무엇일까? 나눔은 물질적으로만 할 수 있을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온도계가 올라갈까? 사랑의 온도계에 궁금증이 잔뜩 생겼다.

나는 꼭 물질적 나눔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엄마와 나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나눔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질적인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진짜 나눔의 시작은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진실된 마음이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주면 행복해진다.

슬픈 마음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쁜 마음을 나누면 즐거워진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돈이나 음식, 물건과는 다른 것이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나눌 수 있고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나눌 수 있고 나누면 마음이 배로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마법이다.

학교에서 아프리카에 사는 어려운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내가 한글로 써서 보내면 아프리카어로 번역해서 친구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다. 그 친구가 편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편지를 썼다. 한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가 내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하니 두근거리기도 하고, 편지를 쓰고 나니 너무 큰 보람이 느껴졌다. 나눔이 이렇게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것이다.

편지를 쓰는 것은 기부를 하거나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시간과 마음 들이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나눔이 있다. 모두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나는 용돈도 아직 받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자신 있다. 이런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물질적인 나눔까지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의 온도를 가진 사람이 되는 않을까? 나는 올해 겨울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계가 얼마나 올라갈지 너무 궁금해진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온도계가 그 온도를 조금이나마 더 올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모두의 희망 '나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나눔'이란 단어의 뜻을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나눔'을 쓰신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나눔'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딱히 많이 쓰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나눔'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반면으로는 친근하기도 한 나눔의 뜻은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나눔의 뜻은 '대가를 받지 않고 표나 물건 등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눔의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어머니께서 함께 나눔을 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왜 나눔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나눔을 한다는 사실에 기분도 나쁘고, 괜히 나의 것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떨결에 나눔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눔이란 것을 하게 된 곳은 한 기부 단체였습니다. 그 기부 단체에 제 돈을 나눔하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학교가 지어지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12년 인생 처음으로 ‘나눔’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 통의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우편물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인 줄 알고 대충 우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봉투에 ‘나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편물을 뜯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았습니다. 그 우편물 안에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소녀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한 소녀가 저에게 나눔을 해주어서,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편지를 읽고, ‘나눔’이란 단어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눔’이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난 후, 나의 작은 노력들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눔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작은 돈이라도 매년 나눔을 하겠다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저는 도서관에서 책들을 구경하다 나눔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나눔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정말 나눔은 희망 그 자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들처럼 나눔이란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행복을 줍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고, 저처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눔을 하다 보면 나눔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눔을 함으로써 따뜻하고 정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눔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나눔'

저는 나눔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눔에 관해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눔을 한 적도, 나눔한 것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작년 어린이날에 저는 반 친구들에게 약과를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약과를 나누어 주고 나서 친구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 친구가 과자를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보답을 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경험으로는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앱입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나눔도 가능합니다. 돈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 사용했던 장난감 등을 나눔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엄마가 나눔한 물건을 받은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음료수를 줬습니다. 저는 그때 나눔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으로 나눔 하는 물건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엄청 많이 들고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새해, 1월 일에 공원에서 나누어 주는 떡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사람도 많았는데 떡국을 나누어 주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마웠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따뜻한 떡국을 먹으니 한 해를 잘 보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떡국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은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떡국을 나누어 준다면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니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떡국이랑 김치를 한 그릇씩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받으면 일을 하는 동안 힘이 계속 나고 기쁜 얼굴로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날에 스티커를 모으는 판이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받으면 받은 개수 만큼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코인으로 기부를 하거나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은 코인으로 기념품 하나를 사고 천원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천원은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나눔에 관한 경험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눔을 할 때는 뿌듯한 기분이 들고 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눔 한 것을 받을 때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저도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눔을 할 때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좋은 점으로는 나눔을 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둘다 기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부와 같은 나눔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나눔하는 것이니 나에게 쓸데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은 사람에 따라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을 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점으로는 받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눔을 할 때 물건이 공짜이다 보니 받는 사람이 욕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계속 커지면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면 나눔을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점이 조금 있지만 좋은 점도 많고 서로 고마운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경험 해보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나눔을 하고 여러명의 친구들이 고맙다고 해서 부끄럽긴 했지만 내 자신이 뿌듯하고 다음에도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눔을 받았을때는 제가 싫어하는 물건이더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받는 사람도 자신도 행복할 것입니다.

기린초와 꿀벌

키 작은 기린초가

노오란 별꽃들을 피워내면

어느새 어린 꿀벌 한 마리가

별꽃 위에 살짝 날아오른다.

영덩이에 샛노란 꽃가루를 묻힌 채

향긋한 별꽃에 얼굴을 파묻으면

기린초 꽃잎이 어서와 반갑다고

다섯 손가락 활짝 펼쳐 손을 흔든다.

기린초는 꽃꿀을 피우고

꿀벌은 꽃가루를 옮겨주듯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며

매일매일 서로에게 선물을 한다.

나누는 기쁨

내가 가진 걸 나눌 때면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둘을 얻는 것 같아요
친구의 행복한 미소 하나
파도처럼 시원하게 번져오는
내 마음의 기쁨 하나
우리 둘이 더욱 더 커져가는
나눔의 행복은 두 배

내가 가진 걸 나눌 때면
온 세상이 이불처럼 따뜻해져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용돈을 나누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또 용돈을 나누면
세상이 촛불처럼 환하게 빛이 나요
누군가 고맙다고 편지를 보낸 것처럼
하얀 벚꽃이 거리마다 피어나요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행복과 사랑을 나누면
전쟁은 끝날 거 같아요
지구는 우리 모두의 놀이터가 돼요

[나눔은 따스한 이불 한 겹 같은 포근함]

지금 집에 있는 내 필통에는 사랑의 열매 배지가 4개 달려 있다. 이 빨간 배지를 볼 때마다 내가 용돈을 꼬박꼬박 모았던 기억이 난다.

“안 돼. 나 이거 모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친구와 노는 것까지 참아가며 기부할 돈을 모았었다. 그렇게 내가 모은 돈은 무려 7만원! 당시 나의 용돈은 만원이었다. 드디어 기부하는 날이 왔다! 우리 학교에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 온다. 모금함 옆에 놓여져 있는 빨간 배지는 정말 예쁘고 영롱했다. 나는 1년에 한번씩 이 기회를 최대한 오래 느끼고 싶어서 4번에 걸쳐 15,000원씩 기부를하기로 했다.

“아싸!” 기부를 하고 빨간 열매 배지를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내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배지를 보자 이름 모를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포근함 그리고 뿌듯함. 용돈을 아낄 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금세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다음 세 번도 정말 기분 좋게 잘했다.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다. 어느 날이었다. 하굣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다.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물었다. “아니, 내가 친구랑 부딪혔는데 벽에 쿵 박고 발목이 꺾였어...” 친구가 훌쩍이며 말했다. 가만히 보니 친구의 발목에 피가 꽤 많이 흐르고 있었다. “빨리 업혀! 보건실 가게!” 나는 그것을 보고 바로 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보다 키가 커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친구를 업은 채 보건실로 뛰어갔고 보건 선생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 치료를 하면서 “친구가 너 아니면 큰 일 날 뻔 했네. 진짜 고생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셨다.

몇 시간 뒤, 나는 친구에게도 카톡을 받았다. ‘너 덕분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거래. 나를 업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다 나으면 편의점 쏜다!’ 메시지 밑에는 발목에 반깁스를 하고 있는 친구의 사진이 함께 있었다. 이 카톡을 받았을 때가 진짜 잊히지 않는다. 그 뿌듯함과 뜨거운 감동이란... 앞으로 친구를 더 많이 도와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됐다.

이런 나의 선행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나는 원래 정이 많고 나누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지금도 올해 다가올 사랑의 열매 기부를 하려고 목표 금액인 10만원을 모았다. 상자에 쌓인 만 원권을 볼 때 마다 정말 기쁘다. 기부는 보통 겨울에 하게 되니까 돈을 더 모을 생각이다. 또,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려고 음식을 기부하는 행사를 한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또 나는 따로 5만원이나 모았다. 가끔씩 간식 하나쯤은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이 있지만 아직은 잘 이겨내고 있다. 나의 기부로 인해 행복해질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나눔이란 포근한 이불과 같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한층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고 포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 앞에 놓인 4개의 빨간 배지는 여전히 영롱하다. 예쁜 마음으로 한 모든 나눔의 끝에는 빛바래지 않는 열매가 달릴 것이다. 나눔은 달달하고 포근하고 가볍다. 다음 기부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나의 마음도 포근하다.

나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실천하면 어떨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꼭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나부터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또 우리가 밝히는
나눔의 빛,
꺼지지 않는
나눔의 빛.

이렇게 나눔의 빛이 모여
길을 잃은 사람에게
지쳐가는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는 우리가 되자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나눔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힘든 것 보다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

슬픔도

나누며

내 것이라 욕심부리지 않고

기쁨으로 나눌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도
내게 나누어 준다

나눔이란
뿌듯한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은 바로 나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나눔이 있다. 엄마와 나의 사랑 나눔, 이웃과의 정 나눔, 친구들과의 우정나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배움나눔, 내가 다니는 마산 사회종합복지관에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우리 동생이 다니는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육아나눔 등등 그 중에서 난 소아암 친구들에게 머리카락을 나누어 주었다.

내가 8살이던 6년 전 엄마는 내게 전이수라는 남자아이를 소개 시켜주셨다. 티비 프로그램에 나온 그 남자아이는 어린나이에 동화작가이면서 남자지만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소아암 친구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남자아이 였다면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이수는 머리를 기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우리 반에 전이수 같은 친구가 있다면 난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나는 4살 때 어린이 집에서 넘어져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5살에 수술을 하였다. 그래서 무릎이 좋지 않아 서울대학어린이병원에 1년에 한번 씩 간다. 병원을 갈 때 마다 나뉜 병이 심각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나의 걱정은 쥐똥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 가보니 나보다 아픈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아이는 컴퓨터 같이 생긴 모니터가 달린 링거를 여러 개 달고 여름인데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엄마, 왜 저 아이는 이렇게 더운 날 모자를 쓰고 있어?”라고 물은 적이 있다. 엄마는 소아암 친구인데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항암치료를 해야하는데 항암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송송 빠져서 모자를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다. 여름방학 숙제로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읽은 책 중에 「뭔가 특별한 아저씨」란 책이있었다. 뭔가 특별한 아저씨는 머리카락기부에 관한 책이다. 책 속 주인공 뭔가 특별한 아저씨는 머리카락이 길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받았다.

책을 읽고 저번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본 모자 쓴 아이가 생각이 났다. 나도 소아암 친구에게 내 머리카락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머리카락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와 내동생 솔하, 솔희도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다. 1년, 2년, 3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왔다. 둘째 동생은 솔하는 엉덩이까지, 셋째 동생 솔희는 등까지 길렀다. 하지만 엄청난 길이의 머리카락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업시간 책을 볼 때는 목이 너무 아팠다. 수영장에서 머리를 감을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샴푸도 엄청나게 써야 했다. 어느 날 수영장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께서 “아이고 무슨 머리가 그리기노? 어디 가는데?”하셨다. 나와 동생 솔하는 수영장에 간다고 하였고 할머니께서는 “내도 수영장 다니는데 근데 니네는 머리카락이 그리 길어서 수영은 할 수 있겠나?”하셨다.

“머리카락은 말라꼬 그리 기르는데?”하셨고 소아암 친구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께서는 수영장 할머니들께 저와 동생이 소아암 친구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할머니께서는 “오미 니 진짜가? 우리 손녀 딸도 기부한다는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제..... 그 기부 왜 하는데?” “소아암 친구는 항암제 약이 독해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가발을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머리카락을 기부하면 그 친구에게 가발을 줘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와! 니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끼다. 자매가 기특하네” 하셨다. 그 할머니께서는 만날 때 마다 나의 머리카락 기부를 수영장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 저편에서 뿌듯함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길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다. 그래도 옆에서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수영장 할머니들 덕분에 참을 수 있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날 우리 자매와 엄마는 동네 미용실을 찾았고 미용실 원장님께 기부 할 것이니 여러 갈래고 잘라 달라고 말씀드렸다. 미용실 원장님께서도 수영장 할머니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무슨 기부냐고 물어보셨고 소아암 친구에게 가발을 선물하기 위해 하는 기부라고 말씀드렸다. 미용실 원장님께서도 “내가 눈물이 다나노?” 하시면서 우리 머리카락을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셨다. 내 머리카락은 55센티미터,솔하는 59센티미터 솔희는 48센티미터였다.

허리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귀밑까지 최대한으로 자르고 나니 머리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가벼워진 머리카락만큼 내 마음도 기뻐다. 어머니운동본부라는 사회공헌재단으로 보내었고 며칠 뒤 우리 자매는 기부증서를 출력하게 되었다. 우리 집 막내 솔희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아픈 친구들이 놀러 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아주 신나 했다. 단발머리로 수영장에 다시 갔을 때 수영장 청소 이모가 자기 조카도 소아암인데 너무 고맙다며 맛있는거 사먹으라며 만원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내 머리를 길러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너무 기뻐다.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오랜 시간 걸린 작은 나눔의 실천을 하고 나니 조금은 힘들었지만 뿌듯하였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나눔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내가 머리카락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진 만큼 받은 친구도 같으리라 믿는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은 바로 나눔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 질 것이다!

- 함께 행복해 지는 나눔 -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사촌 형.누나들을 따라서 대전 현충원에
묘비와 묘역 청소를 하러 다니고, 동네에서 쓰담을 하면서,
주변 환경청소도 하고, 평상시에 분리수거도 잘 하였어요.
코로나때는 사촌들과 함께 마스크 기부와 현금 기부도 하면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도
했었어요.

요즘은 사촌형. 누나들이 바빠서, 엄마와 주말에 현충원에 가면,
묘역배정을 받은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영구히 추앙하며,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호국정신의 함양을 위해 만든 현충탑앞에서 이름모를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요즘은 고학년이 되다 보니 나도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자주는 못오지만, 현충원 곳곳에 있는 대통령묘역.
장군묘역. 애국지사묘역. 경찰묘역. 군인묘역등 다양한 묘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대할때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잘 지낼수 있게 나라를 지켜주신 이름

모를 그분들을 위해서, 꽃병도 정리하고, 주변 쓰레기도 주우며,
태극기도 정돈해 드리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현충원에선 호국철도기념관이라는 기차가 있는데, 그안에선
다양한 기차의 모형과 6.25를 거치면서 기차가 가진 역사도 배울수
있어서 너무 좋은것 같다.

현충원 둘레길을 따라서, 한바퀴 걷다보면,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아서도 좋아지고, 현충지라는 한반도 지도모양을 본떠 만든
연못에도 들어서 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늘나라 우체통에 이름모를
분들께 편지도 써서 넣어 보고 싶기도 하고, 메타세콰이어길과
야생화공원도 걸어보기보기도 하고, 호국 장비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는 6.25전후 사용되었던 각 군의 전투장비를 보고, 그 시대엔
어떤 비행기. 탱크. 장갑차등으로 우리 군인들이 사용하고 전쟁에

참여했었는지도 볼수 있어서, 고마움을 다시 느껴보기도 한다.
매점에 들어서 잠깐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고, 조화도 1-2개 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모를 묘역에 헌화를 해보기도 하면서,
나도 우리 나라를 목숨으로 지킨 그분들이 돌려주신 고마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지나간 역사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 보는게, 아직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